

[목포권]

목포 '해양 음악분수' 설치 논란

국내 최대 규모의 목포 앞바다 해양 음악분수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평화광장 앞바다에 길이 150m, 분사 높이 35m 규모의 해양 음악분수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내년 1월 착공, 8월 '2009년 목포 해양문화축제' 때 시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세부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근 HSMN조지워터를 사업자로 확정하고 해양 음악 분수 설치 계획에 들어갔다.

길이 150·분사 높이 35m...국내 최대 규모

환경단체 "생태계 악영향·소음 우려" 반발

사업비 134억원 가운데 50%를 국비 지원받아 시행되며 현재 4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가 지원되는 해양 음악분수가 완공되면 황홀한 불빛, 다양한 물보라로 환상적인 목포의 추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 등 목포 관광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다음 달 초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시설계 보고회를 통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상청의 자료 분석 등 과학적

인 데이터를 수집해 분수를 설치하고 풍속과 풍향 등 기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음악분수 설치 사업에 대해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바닷물을 쏟아 올리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소음 발생이 우려된다"며 "일본 가고시마현과 마산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통계운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

'제 2회 신안군 장애인 한마음 재활 증진대회'가 지난 20일 장애인과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증진대회는 음·면 대형 명령 운동회와 장애인과 초청 가수가 함께하는 '한마음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천사들의 하모니...日 열도 녹였다

신안 '천사섬 어린이합창단' 日 공연 성료

신안지역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천사섬 어린이합창단'(단장 박인숙)이 성황리에 일본 공연을 마쳤다.

'천사섬 어린이합창단'은 한일 문화교류협회 조성으로 지난 2011년 10월 일본 구마모토시 용남중학교와 아소 시립 중학교에서 동요와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사진>

이번 공연은 제일무용과 정명자씨의 '진도 북춤'을 비롯해 '천사섬 합창단'의 동요, 경희줄소리 시범단과 비보이팀 소울킹의 특

별공연, 용남중학교와 아소시 카나시 소학교 합창단의 우정출연이 이어졌다.

또 '천사섬 합창단'의 뮤지컬 '천사들의 하모니'(연출 차영선)가 무대에 올려져 일본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신안 초·중등학생 25명으로 구성된 '천사섬 어린이합창단'은 지난 2003년 섬 어린이 동요대회를 계기로 창단돼 활발한 국내외 공연을 갖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군의회 파행 '해도 너무 해'

의장단 선거 후유증...넉달째 '개점 휴업'

신안군의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넉 달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신안군의회는 하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23일 현재 3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총무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총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안군의회는 2009년 예산안 처리와 행정 사무감사 등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지난 21일 1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다시 총무위원회 구성에 실�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이에 따라 24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과정을 거듭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24일에도 총무위원회 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와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불가피한 설정"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의회는 올해 하반기 32일의 회기를 운영했으나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회기 불참으로 추경예산과 시급한 조례 제정 등 의사 일정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베토벤 명곡' 선 보여

목포시립교향악단 26일 연주회

목포 시립교향악단(지휘자 진윤일)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제 8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순수'를 주제로 한 이번 연주회는 바이올린 협주곡, 전원교향곡 등 베토벤의 명곡들을 선보인다.

특히 1806년 베토벤이 36세 때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서울시향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니스 김을 초청했다.

/목포=임영총기자 lyc@

인터넷 명예경찰 떴다

무안경찰 '누리캅스' 11명 위촉

무안경찰서(서장 민갑룡)가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21일 제 1기 '누리캅스' 위촉식을 가졌다.

인터넷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는 IT 종사자, 공무원, 경찰학과 학생 등 인터넷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민갑룡 서장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사이버사법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신안 자은도에 대규모 '한옥 테마파크'

郡-예술인聯 320억 규모 투자협약

신안군 자은면에 대규모 한옥 테마파크 조성된다.

신안군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 이창협 이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테마파크 조성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는 320억원을 들어 자은면 백산리 일대에 한옥 59세대가 들어서는 한옥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또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과 농촌체험학습장, 홍보전

강증진시설, 앙아화체험학습장, 음식문화연구소 등도 설치 운영된다.

신안군은 한옥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와 전선, 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옥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예술인 출입주자들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는 전국 각지의 대학교수와 의사, 조각가, 화가, 시인, 성악가 등으로 구성된

내년도 농촌마을개발사업

전남도 예비심의 결과 1위

전과 발전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참여형 상향식사업으로 추진된다.

임회면 죽림권역은 내년 2월 말까지 한국농촌공사 조사팀과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 향후 3~5년간 최대 49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진도 죽림권역 최우수 선정

진도군 입회면 죽림권역이 내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남도 자체 심의 결과 최우수권역으로 선정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임회면 죽림권역은 전남지역 17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예비 심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임회면 죽림권역은 마을 앞에 개별 이 펼쳐져 있고 갠바위 낚시터, 송립 숲, 조약돌 해안, 돌탑 이야기가 있는

립립 언덕, 국립남도국악원 등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임대적 지원이 산재해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역점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임대자원을 최대한 활용,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역의 비

이외에도 고속정 및 고속 단정(RIB)의 물격기동, 항공기 대잠수함 탐색 및 공격, 해경 헬기의 인명구조 시범 등이 시행돼 믿음직한 3함대의 위용과 전술 기량을 과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지역 통합방위 관계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자매결연단체, 군 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목포=이상규기자 hypark@

해군 3함대사령부 28일 목포서 '기동훈련'

해군 제3함대사령부가 오는 28일 오후 시야해(목포항 수로)에서 양만 충합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4대 등이 참가하는 '2008년 함대 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훈련은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올 해연 연마해온 함대의 전

투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해상 사찰에는 3천500t급 구축함 양만충합을 비롯해 호위함인 충남함, 울산함, 초계함인 공주함, 광명함, 안양함 등 총 13척의 3함대 소속 주력 함정과 대잠헬기 2대, 해경 헬기 2대

가 참가한다.

이외에도 고속정 및 고속 단정(RIB)의 물격기동, 항공기 대잠수함 탐색 및 공격, 해경 헬기의 인명구조

시범 등이 시행돼 믿음직한 3함대의 위용과 전술 기량을 과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지역 통합방위 관계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자매결연단체, 군 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A+ 에이플러스공인증개사

시장호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 구함 **수완지구** **건축 살림**

철단지 구상업 용지

1100평 40평(평당 470만원)

200평 22평(평당 1100만원)

수완지 구가 빌지구

이주자택지

법의안도오백지

생활비자금지

신창지 구가 빌지구

상업용지 140평 균세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평 600평 16평

골프연습장 120여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불광광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인동 4천평 1200평 1800평

광주지역 녹지

(신용도에따라)

매매

•상권 좋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매

•지 역: 수완지구 주공 상가

•면 적: 822.28평(25.7평)

•매매가: 5억7천

•특 징: 10평 3200세대 중심에 위치, 명의 변경 가능

•대출 가능금액: 3~4억

(신용도에따라)

토지 구